

한국과 일본의 출세어(出世魚) 명칭에 관한 대조연구*

양민호**

〈 Abstract 〉

A Study on the Name of *Chul-se-eo* in Korea and Japan

This paper analyzed the names of *Chul-se-eo* in Korean and Japanese language geographically. "*Chul-se-eo*" means a fish that is called by different names at different stages of growth. How the *chul-se-eo* name is classified and distributed in Korea and Japan.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re are various dialects in the name of *Chul-se-eo*. The name of *Chul-se-eo* depends on the seasonal migration route or sea region. The mullet has a highly developed language variant on the west sea of Korea. From the narrow view of yellowtail fish,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name of yellowtail fish and the food culture of eastern and western regions of Toyama, Japan, and the coastal and inland areas of Japan. Yellowtail fish is a very simple name for yellowtail fish the West Sea of Korea, which is not part of the seasonal migration route. South Korea's East sea, and South sea, Jeju sea in various different names appeared. Habitat is not East Sea and a saltwater fish, mullet and bass, not Japanese language of expression in the case of A case in point is less contact. The paper found out about fishing village culture and vocabulary acceptance in Korea and Japan.

Field : Sociolinguistics

Keywords : Language geography, *Chul-se-eo*, Language contact, Dialect, Sea region, Contrast study

1. 들어가며

본고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사용하는 출세어(出世魚)라는 물고기의 명칭을 언어지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언어지리학(Linguistic Geography)은 '방언지리학'이라고도 불리는데 같은 언어일지라도 지역적 조건, 사회 환경의 변화로부터 표출된 언어분화의 모습을 살펴보는 언어학의 한 분야를 말한다. 예를 들어 어획물 명칭과 같이 동일한 것을 가리키지만 지리적, 혹은 어부와 같이 집단적 환경 때문에 어형이 변화하여 분화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는 방언의 고형(古形) 또는 언어변화의 과정에 대하여 지리적 분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분화의 모습을 해석과 관련된 용어를 빚대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찍이 동북아해역 국가들은 수산물 소비에 있어서 거대 시장이었으며 앞으로도 소비량 및 교역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듯 동북아해역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경제활동 수단인 어획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미 수산과학 분야에서는 물고기 및 어획물 자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9869).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연구교수, 사회언어학(해역언어학)

행되어 오고 있다. 다만 인문학적 입장에서 접근할 때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해역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물고기의 이동 경로와 언어지리학적 방언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예컨대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단일 국가별로 연구가 진행된 적은 있지만 한중일 더 나아가서 동북아해역과 같이 광역적 혹은 초국가적으로 조사나 분석이 이루어진 적은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세어를 비롯한 어획물의 명칭을 통하여 해역 기층문화의 일면을 투영해보겠다.

2. 출세어의 개념

손병태(1997)는 물고기의 종류를 크게 ‘해수어’와 ‘담수어’로 구분하고 ‘담수어’는 민물에서 사는 물고기를 ‘1차 담수어’, 바다와 민물을 오가며 사는 물고기를 ‘2차 담수어’로 규정하고 있다. 당연하지만 바닷가에 사는 물고기는 ‘해수어’에 해당된다. 이렇게 다양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물고기의 명칭은 예로부터 다양한 방언을 가졌지만 문자화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구전되어 오면서 강한 보수성과 사회성을 지녔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의 명칭은 물건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인 물명어(物名語)로서 국어의 어원, 음운, 형태 등의 개별 언어 연구에 살아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출세어의 경우 담수와 해수를 오가며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기수역(汽水域)에 사는 물고기가 많아 다양한 명칭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해역을 넘나들며 어류 명칭의 유사성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과 ‘역동성’이라는 측면 즉 언어전파와 교류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출세어의 명칭 연구는 필수불가결하다. 그렇다면 먼저 출세어의 정의부터 살펴보겠다.

‘출세어’란 성장 단계에 따라 이름이 바뀌는 물고기를 말한다. 이렇게 크면서 이름이 바뀌는 물고기를 ‘출세어(出世魚)’라고 부르는데 치어(稚魚)에서 성어(成魚)까지의 성장 단계별로 다른 명칭을 가진 물고기를 가리킨다. 출세어의 어원은 일본에서 에도(江戸) 시대까지 무사나 학자에게는 성인이 되거나 출세를 하였을 때 이름을 바꾸는 관습에서 유래했으며 그 관습에 빗대어 ‘성장과 함께 출세하는 것처럼 명칭이 바뀌는 물고기’를 출세어라 칭하고 ‘운수 또는 재수가 좋은 귀한 생선’으로 해석되어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 또는 잔치 음식에 자주 쓰였다.

본고에서 언급할 농어, 송어, 방어가 대표적 출세어인 셈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출세어의 이동 경로와 명칭의 관계를 언어지리학적 입장에서 개략하겠다. 이러한 기초연구를 통하여 향후 출세어의 이동과 동북아해역 사회현상의 역동성을 밝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출세어에 대한 언급은 조선 3대 어보와 한국수산지(1909), 그리고 비교적 최근 자료인 민족생활어 조사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 김려가 진해 앞바다의 해상생물을 연구한 ‘우해이어보(牛海異魚譜)(1803)’, 정약전이 흑산도 연해의 수족을 기록한 ‘자산어보(茲山魚譜)(1814)’ 그리고 서유구가 난호¹⁾ 지방의 어족(魚族)에 관한 내용을 적은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1820)’에 등장한다. 어류의 명칭과 그 효능 등을 적어두었다. 후술하겠지만 예를 들어 ‘자산어보’에서 鱈魚(농어)는 어린 농어를 ‘보로어(甫鱈魚)’ 또는 ‘갈덕어(乞德魚)’라고 표현하였으며, 송어(秀魚)는 작은놈을 ‘등기리(登其里)’, 가장 어린놈을 ‘모치(毛峙)’, 그리고 ‘모당(毛當)’, ‘모장(毛將)’으로 부른다고 기술하고 있다. 당시에 이미 성장과정에 따른 어류의 분화가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어종(魚種)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옛 문헌에 정리되어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1차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기보다 구술자료 또는 필드워크를 통해 정리된 2차 자

1) 현재 전북 고창지역

료에서 출세어 부분을 재분석하며 논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우선 가장 최근 자료로 볼 수 있는 국립국어원의 민족생활어 구술자료를 참고로 출세어의 명칭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 이 자료는 어부들 또는 수산업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녹취하고 이를 문자화하여 정리한 것이다. 김지숙(2017)은 국립국어원의 민족생활어 조사자료 중 ‘방어와 농어’의 크기에 대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방어는) 옛날엔 그냥 {부시리다} 그러구요. 쪼고만한 {야스름} {하마치다고} 그러죠. 방어하고 야스는
출처갖고 하는 거예요. [추자도]*

큰 거는 {농어}. 금방 고씨처럼 적은 거는 {겔떼기}. [추자도]

*(방어지). 요서는 {방에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야도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알아도라. 작은 걸 {알아도}.
큰 거는 인제 그 {중부리}. {대부리} 고부리 그렇게 불렀어요. {고부리는} 더 큰 거고. [육지도]*

*방어는 가을방어라 해. 가을방어. {가을방어는} 기름지고 맛이 있고 {여름방어나} {봄방어} 맛이 없다고
잘 안 먹는다고 [울릉도]*

이상은 구술 자료의 일부만을 발췌해 소개한 것이지만 어민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매우 다양하다. 그저 물고기의 명칭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 표현되어 있으며, 때로는 그들의 생계와 관련된 어획물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언어의 분화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3. 출세어별 명칭에 관한 연구

3.1 농어의 명칭

우선 한국에서 잡히는 농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자어로는 노어(鱸魚)라고 하며, 서유구(徐有槩)의 난호어목지에서는 ‘격정’이라 하였고, 정약용의 아언각비(雅言覺非)에서는 ‘농어(農魚)’라고 불렀다. 그리고 정약전의 저서인 자산어보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농어의 어린 물고기를 보로어(浦鱸魚) 또는 곁덕어(乞德魚)라 한다²⁾.

2) 자산어보 원문 鱸魚幼子俗呼浦鱸魚又呼乞德魚



〈사진1〉 농어

특히 물고기 명칭에 들어가는 보(浦)는 작은 물고기를 가리키는 접두어로 주로 사용되어 작은 농어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농어는 가을이나 겨울에 기수(汽水)에서 산란하고, 어린 물고기는 봄과 여름에 담수 쪽으로 거슬러 올라와서 서식하다가 가을과 겨울에 다시 바다로 내려간다. 농어는 성질이 담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잠마 때나 물이 넘칠 때 바닷물과 민물이 합쳐지는 곳이 주요 어장이다. 다시 말해 압록강·대동강·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 하구, 울산만 등 기수역 지대에 서식한다. 다만 경기도 일부와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에 서식한다. 이와 같은 습성을 지닌 농어의 명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한국의 지역별 출세어 (농어명칭)

농어	1년	2년	3년	4년	5년
한강하류/과주	결더기	가세기	기슬매기	포농애	농어
무안	결더기				
완도	보결더기				
완도	결덕	농애			
부산	까지매기				
작천(전남강진)	깔닥				
독대(충남보령)	깔대기	농애			
	깔대기		농애		
황산(전북남원)	결덕	농애			

〈표1〉을 보면 자산어보에서 언급한 것처럼 농어의 작은 개체를 ‘꼰더기’ ‘꼰대기’라고 부르며 농어의 방언형 ‘농애(농에)’로 표현되고 있다. 다만 이근우(2009)에 의하면 한국수산지 속 문헌에서는 鱸를 송어로 잘못 표시하고 있으며 원래의 의미와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 오히려 번역의 장애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부정확한 대응어로 인한 폐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농어 명칭의 다양한 패턴으로 살펴보면 ‘꼰더기’ ‘가세기’, ‘기슬매기’ 등과 같이 ‘-이’형³⁾ 어류의 명칭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서울에서 소비량이 많은 농어는 한강 하류에서 다양한 언어분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일본 농어의 명칭에 대해 살펴보겠다.

〈표2〉 일본의 지역별 출세어 농어(스즈키) 명칭

지역/권역	1~2년 길이 20-30cm	2~3년 길이 40-60cm	통상 4~5년 정도
關東 간토 태평양	セイゴ 세이고	フッコ 훗코	스즈키 스즈키
關西 간사이 태평양	セイゴ 세이고	ハネ 하네	스즈키 스즈키
東海 도카이 태평양	セイゴ세이고 (60cm정도까지)		マダカ 마다카 (그 이상의 크기)
東北 도호쿠 태평양	セイゴ 세이고	セツパ 셋파	스즈키 스즈키
아리아케 有明海 세토나이	セイゴ 세이고	ハクラ 하쿠라	스즈키 스즈키

농어의 학명은 Japanese seabass이며 일본에서 스즈키라고 불린다. 홋카이도에서부터 규슈 서쪽해안까지 폭넓게 서식한다. 동해(일본해), 동지나해, 태평양 연안, 세토나이 해까지 이동을 한다. 스즈키라고 부르는 농어의 어원은 ‘進み(진행, 전진)’의 의미거나 ‘すすぐ(헝구다)’처럼 ‘몸이 하얗다’는 어원과 ‘すす(스스)’라는 작을 ‘小(소)’의 의미로 ‘입은 큰 것에 비하여 꼬리부분은 너무 작다’라는 의미에서 기인되었다. 일본의 지역별 농어의 명칭 대응은 표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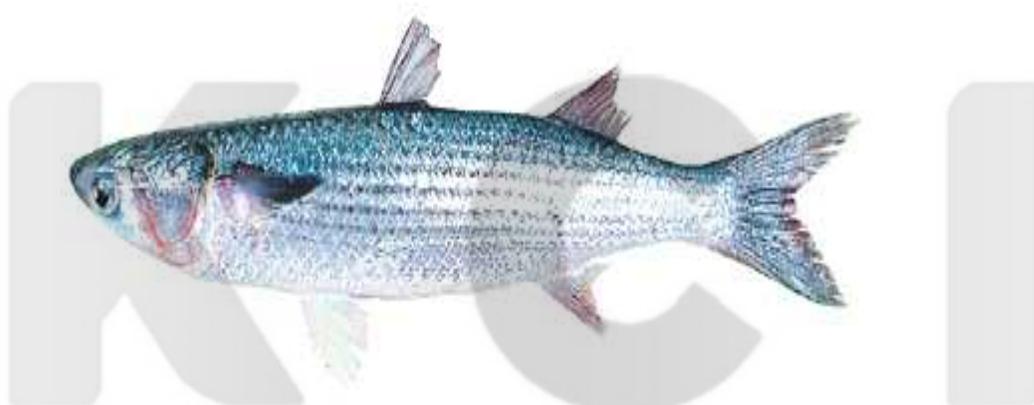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송어나 방어와 같은 출세어에 비해 농어는 ヒカリゴ/コップ→セイゴ→フッコ/ハネ/セツパ/ハクラ→스즈키/マダ카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어형 체계를 가지고 있다. 5cm 안팎의 치어 단계의 히카리고(히카리고)와 10cm 안팎의 코ప్ప(코파), 1년~2년 생선으로 25cm 안팎은 ‘세이고(세이고)’. 2~3년

3) 손병태(1997)에 의하면 ‘-이’형에는 ‘-기’-‘디기’-‘지기’-‘지’-‘리’-‘미리’-‘미’-‘앙이’형으로 하위구분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대체로 흔한 고기 이름에 붙는 접미어라고 볼 수 있다. -어 형이 붙는 물고기는 해수어에서 대체로 품위가 있으며 고급스럽고, 담수어에서는 희귀하고 유익하며 계절과 관계되는 어류명이 많다.

에서 30~40cm 이상은 フッコ(푸코) 또는 ハネ(하네)라고 불리며, 그리고 4년 이상으로 체장이 60cm가 넘는 것을 스즈키(스즈키)라고 부른다. 이와 같이 명칭의 분포를 보면 주로 태평양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농어의 어획량의 분포와도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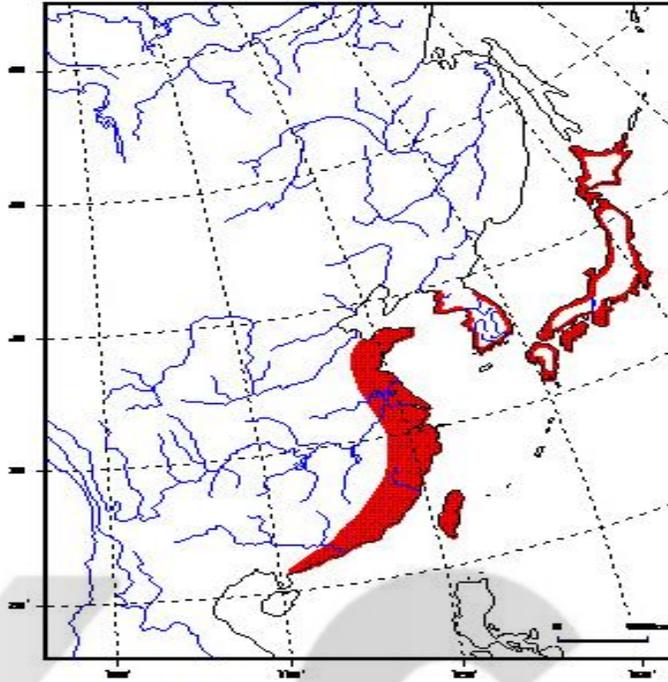
3.2 송어의 명칭

송어는 세계적으로 분포하며 한국에서도 모든 연안에 서식한다. 앞선 물고기의 분류로 보았을 때 해수어지만 산란기에는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기수역에 주로 출몰한다. 정문기(1997)에 따르면 송어과에는 비슷한 송어들이 존재하는데 몸집이 크고 눈이 노란 것은 가송어이며, 눈이 까만 것이 송어이다. 특히 전남 영산강, 전북 만경강, 충남 아산만, 경기도 한강 어귀, 평안도 대동강 어귀 등이 송어 산지로 유명하다고 전해지고 있다. 송어와 가송어는 모양도 약간 다르지만 산란기도 차이가 있다. 송어는 10~2월에 산란하지만 가송어는 4~6월에 산란한다.



〈사진2〉 송어

이태원, 홍지민, 윤재선(2014)에 따르면 남해안 송어는 늦가을에 연안 수온이 낮아지면 외해로 이동하여 11월에서 1월 사이 산란하고 다음해 3월 수온이 상승하면 다시 연안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제주 하구와 순천 하구에서는 송어 치어의 명칭이 자세하게 나타나지만 남해 하구 서해 연안이나 하구에서는 성장한 개체들의 명칭이 출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표3〉과 같이 언어지리학적으로 살펴보면 송어에는 다양한 어형이 존재한다.



〈그림1〉 송어 분포도 by 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표3〉을 보면 한반도를 삼면으로 바다로 볼 때 동해 쪽은 어형이 매우 단순화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 남해, 마지막으로 동해는 매우 세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서해에서도 전남포의 경우 가장 발달한 어형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장태진(1969)은 서해의 중간 지역보다 송어의 어획량이 많은 서해 북쪽(청천강)과 남쪽(영산강)에서 다양한 의미 분화를 이루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역시 어획량과 소비량이 많은 곳에서의 의미 분화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농어 명칭은 ‘-이’형 어류의 명칭어가 대부분이었다면 송어의 경우에는 치어일 경우 ‘-치’형⁴⁾ 성장과정에 따라 ‘-이’형, ‘-어’형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 송어의 ‘-치’형 은 모치, 쌀모치로 발현되던 형태가 시렁이, 모랭이, 모쟁이, 준거리, 나모리, 나모르기⁵⁾ 등과 같이 변화하고 성어인 송애, 송어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표3〉한국의 지역별 출세어 송어 명칭

동해안지역

	1년	2년	3년
강구	모치	숫치	송어
강릉	수치	모치	송어

4) 손병태(1997)에 의하며 ‘-치’는 어류명 어미의 일반적 정형으로 함경, 평안도 방언 ‘-티’에서 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치’형이 붙는 물고기는 대체로 품성이 거칠고 역세며 힘이 세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5) 나모리와 나머래기, 나모르기는 송어의 성장에 따라 6년 이상 되면 몇 년산인지 나이를 모르겠다라는 의미로 붙여진 성장된 송어의 이름이다.

서해안지역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어영도	모랭이	덩어	무덩어	쇠승어	간재비	나머래기	굴목 승어		
정주	모랭이	덩이	엇덩이	무덩이	잡재비	승어	쇠승어	중 승어	대승어
한천	모쟁이 (모치)	총간 모쟁이	글거리	정어	승어	나모래기	나모리		
평양	모치	마륙 쟁이	신마루	구마루	승어				
진남포	모쟁이	또물치	모치	등글 모치	이듭 승어	망치 승어	사릅 승어	대명 자	나모 르기
황해도 연안	동어	애정어	정어	사릅	나모래기	승어			
서울	동어	모쟁이	승어	대다리	뚝다리				
서산	모치	모쟁이	승어						
만경	모치	마륙 쟁이 (말어)	승어						
무안	모치	참동애	댕가리	목시리	소승애	승애			
명산	모쟁이	모치	목은 모치	댕가리	목시락	승애			
영암	모치	목은뭇	딩가리	모그락	승애				

남해안지역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황산	모치	시렁이	거머리	승애			갯승애
완도	쌀모치	모랭이	동어	소승애	승애		목시리
작전	모치	동애	어설치	승애			
강진	모치	동애	모쟁이	준거리	승애		

독대	쌀모랭이	조도리	멀거리	숭애
봉암도	모치	모래미	숭애	
*가덕도	모찌/ 모칠	중부리	숭어,대숭어	

〈장태진(1969) ‘물고기 이름의 어휘 연구’에서 발췌하여 재작성〉

*가덕도의 경우 민족생활어 조사 자료에 의한 것임

다음으로 일본 숭어의 명칭에 대해 살펴보겠다. 일본에서도 숭어는 연안의 얕은 하천, 기수역, 민물을 오가며 오호츠크 해를 제외한 홋카이도~규슈 남쪽의 동해(일본해)·동중국해·태평양 연안, 세토나이 해, 다네가시마·야쿠시마, 류큐 열도, 이즈 제도, 오가사와라 제도, 아무르 강 하구, 사할린 오호츠크 해 연안, 쿠릴 열도 남부의 태평양 연안, 한반도 전체 연안, 대만 북부·서부·남부 중국 요녕성 ~ 하이난·통킹 만, 베트남 연안, 전세계 해역(열대지역)에서 거의 서식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일본에서 숭어를 ‘이나’ 또는 ‘보라’, 그리고 가장 컸을 때 ‘도도’라고 부르는데 이 생선을 빗대어 표현한 형태의 속담이 많이 존재한다. 성장과정을 빗대어 만든 표현인데 ‘도도노쓰마리(とどのつまり)’라는 표현은 출세어인 숭어의 성장과정을 표현하면서 몸통이 가장 큰 숭어 ‘도도’가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좋은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나쁜 예로 사용되는데 이름이 바뀌는 물고기 숭어의 어원에서 유래한 재미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성장과정에 따른 분화된 숭어의 명칭은 〈표4〉와 같다.

〈표4〉 일본의 지역별 출세어 숭어(ボラ) 명칭

지역/권역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關東 간토 태평양	オボコ6) 오보코	イナッコ 이낏코	スバシリ 스바시리	イナ7) 이나	ボラ 보라	トド 도도
関西 간사이 태평양	ハク 하쿠	オボコ 오보코	スバシリ 스바시리	イナ 이나	ボラ 보라	トド 도도
高知 고치 태평양	イキナゴ 이키나고	コボラ 고보라	イナ 이나	ボラ 보라	オオボラ 오오보라	
東北 도호쿠 태평양	コツブラ 고쓰부라	ツボ 쓰보	ミウゲチ 묘게치	ボラ 보라		

6) ‘오보코’는 아이와 같은 어린 모습이나 귀여운 것을 나타내는 「おぼこい」의 어원이 되고, 「未通女」라고 쓰고 처녀를 의미했다.
7) ‘이나’는 젊은이가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머리 모양을 위로 세워 올린 모습과 등지느러미 모양과 비슷한 비유적 표현이다.

〈표5〉 일본의 크기별 출세어 송어(ボラ) 명칭

크기 구분	2~3cm	3~18cm	18~30cm	30~40cm	40cm~
송어	キララゴ기라라고 ゲンブク겐푸쿠 ハク하쿠	オボゴ오보코 オボッゴ오봇코 스바시리스바시리 イナッコ이낫코	이나이나	보라보라	トド도도

일본의 경우 한국에 비해 송어의 어형분화는 적은 편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방언형으로 손꼽히는 것이 송어지만 일본에서는 송어의 어휘 분화가 다음 절에서 언급하는 방언에 비해 적게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송어와 같이 담수와 해수를 오가는 물고기보다 전형적으로 해수어의 소비가 많은 일본에서는 의미의 분화가 적게 일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3 방어의 명칭

출세어 중 마지막으로 방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방어는 공히 한국과 일본에서 출세어로 불리는 대표 어종(魚種)으로 그 크기와 성장 과정에 따라 불리는 이름이 다르다. 대방어 이외 중방어 또는 소방어는 미성어(未成魚)로 취급한다. 한국에서 다음 표5와 같이 지역별 방언 역시 다양하게 존재한다.

조선의 3대 어보 중 하나인 난호어명고에 의하면 방어라고 기록된 물고기의 표준명은 방어다. 방어는 농어목 전갱이과의 바닷물고기로 북서태평양의 남중국해, 타이완, 동중국해, 일본, 한국 등지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고, 특히 동해에서 나는데 관북(함경남북도)과 관동 연해 및 영남의 영덕과 이북에 모두 있으며, 머리가 크고 몸이 길다고 전해지고 있다. 큰 것은 6~7자가 되며 동해쪽에 큰 개체들이 많이 잡힌다. 그렇기 때문에 관북의 어부들이 잡아서 기름을 채취하며 무태방어라고 부르기도 한다.

〈표6〉 한국의 지역별 출세어 방어 명칭

지역	치어----->성어					공통어
	통영·거제 동해	야도	히라스	히라시		
여수·울산	부시리					
마산·창원	부리					
제주	야즈	하마치	부시리	부리	재방어	
강원	떡마르미 떡메레미 방치마르미	마르미 메레미	이배기	피미	사기	
경북·포항·경주· 영덕·울릉	곤지레미	떡메레미		메레기, 되미, 메리미, 마래미		

크기	소어	중어	대어
여수	송소리 (마르미, 줄마르미, 물방어)	되미(30cm) 사배기, 방어(60cm)	무태방어
강원도	마르미		무태방어
강릉	마래미	떡마르미	무태방어
함남		마래미	줄마르기

김홍석(200)에 따르면 방어의 방언형으로 히라스, 히라시(통영, 거제, 동해), 부시리(연수, 울산, 제주), 부리(마산, 창원), 재방어(제주), 마르미, 떡메레미, 피미, 마르미, 방치마르미(강원), 사배기(경북), 메리미(포항, 경주, 영덕, 울릉) 등이 있다. 옛 이름으로 해백어, 사어, 무태방어라고 불렀다. 무태(無太·無泰)는 '매우 크다'는 의미로 쓰인다.

〈표5〉는 크기별 성장기별로 구분된 명칭이 아니지만 강원도에서는 15센티미터 이내의 어린 개체를 떡마르미, 40센티미터 내외의 중간 개체를 이배기, 60센티미터 이상의 큰 개체를 사기라 부르고, 경북에서는 10센티미터 내외를 곤지메레미, 15센티미터 내외를 떡메레미, 30센티미터 내외를 메레기 혹은 되미, 60센티미터 이상을 방어라 부르고 있다. 다만 표5는 현재 그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언형을 치어에서 성어 단계의 과정을 나열해 놓은 것으로 송어와 같이 연령에 따라 구분한 것은 아니니 향후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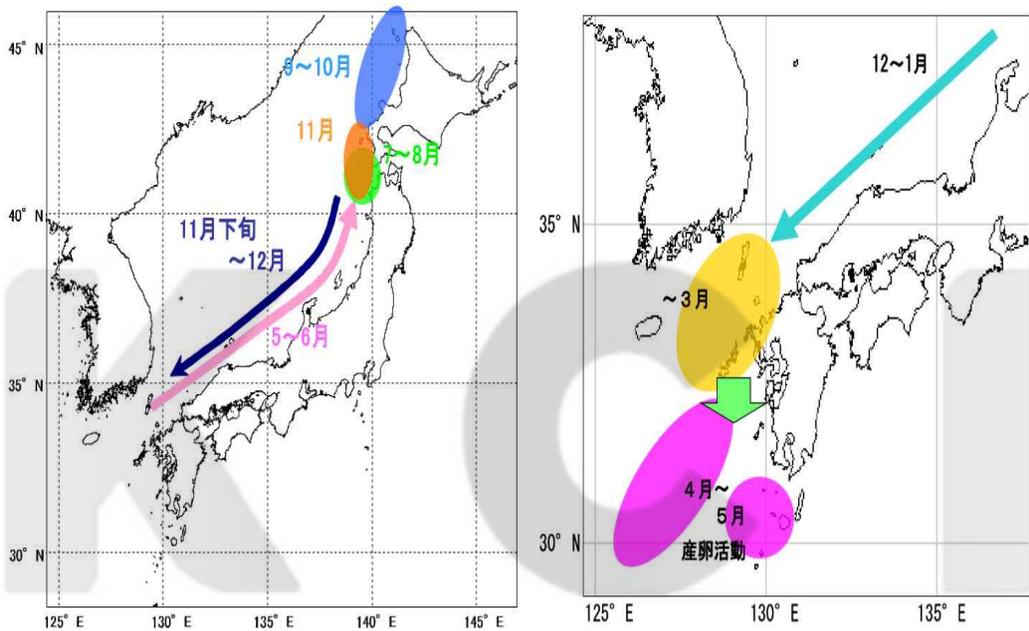
한국에서 방어의 명칭 역시 동해 쪽에서 어형분화가 발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형분화는 '-이'형 중 '-미'의 접미사가 붙은 형태가 주를 이룬다.



〈사진3〉 쓰시마산 천연 히라스

다만 여기서 주장할 수 있는 사실은 지역별 방어의 명칭이 서해에서는 단순화 되어 보이지 않던 명칭들이 환동해권 지역과 산란기를 남해와 제주해 인근에서 산란기를 보내는 방어의 특성상 한국에서도 명칭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일본식 명칭(아즈, 야도, 부리, 하마치, 히라스)으로 다수 사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3처럼 일본은 히라스와 부리는 구별해서 판매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종 구분에서 오는 착오로 인하여 방어의 이칭(異稱)으로 히라스가 사용된 케이스로 봐도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에서 방어는 약 95종에 이른다. <표6>은 일본 방어(ブリ)의 명칭에 대하여 지역별 그리고 크기별로 분류해 놓은 것이다. 여기에 권역별 해역 표시(태평양, 환동해, 대한해협 등)를 덧붙였다.



〈그림2〉 출세어 대방어의 계절적 이동(回遊) 경로

출전: 日本海における大型ブリの動き-福井県水産試験場 자료 중 발췌

〈그림2〉는 방어가 회유어(回遊魚)이면서 출세어이므로 물고기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림2〉를 살펴보면 회유어인 방어는 환동해, 동중국해, 대한해협, 규슈 북부 지역 등을 절기에 맞추어 산란 활동을 하거나 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수온에 따라 움직이는 방어의 명칭은 이동경로에 따라 각기 달라진다. 방어가 주된 이동을 하는 환동해 권역인 호쿠리쿠(北陸), 도야마(富山), 산인(山陰), 규슈(九州) 북부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명칭이 다양화되어 있으며 크기와 성장 상태에 따라 세분화하고 있다.

〈표7〉 일본의 지역별 출세어 방어(ブリ) 명칭

지역/권역	15cm 까지	40cm 정도	60cm 정도			90cm 이상	
關東/ 태평양	와카시 ワカシ	이나다 イナダ	와라사 ワラサ			부리 ブリ	
關西/ 태평양	쓰바스 ツバス	하마치 ハマチ	메지로 メジロ			부리 ブリ	
東北/ 태평양	쓰베 ツベ	이나다 イナダ	아오 アオ			부리 ブリ	
下北/ 환동해	후쿠라기 フクラギ	이나다 イナダ	와라사 ワラサ			부리 ブリ	
北陸/ 환동해	쓰바에리 ツバエリ	고즈쿠라 コズクラ	후쿠라기 フクラギ	아오부 리 アオブ リ	하나지 로 ハナジロ	부리 ブリ	
富山/ 환동해	쓰바이소 ツバイソ	고즈쿠라 コズクラ	후쿠라기 フクラギ	간도 ガンド		부리 ブリ	
山陰/ 환동해	쇼지고 ショウジゴ	와카나 ワカナ	메지로 メジロ	하마치 ハマチ		부리 ブリ	
四国·山 口 ·広島/ 태평양	야즈 ヤズ	하마치 ハマチ				부리 ブリ	
九州 /환동해 /대한해 협/동중국 해	와카나고 ワカナゴ	야즈 ヤズ	하마치 ハマチ	메지로 メジロ		부리 ブリ	오우오 オウオ

YANG(2018)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사피어 워프의 가설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언어가 인간의 사고(思考)를 규정한다고 최초로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는 사피어와 워프이다. 사피어 워프 가설(Sapir-Whorf hypothesis)은 한 사람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과 행동이 그 사람이 쓰는 언어의 문법적 체계와 관련이 있다는 언어학적인 가설이다. 예를 들면 유럽인에게는 시간이 객관화된 것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 1월, 8월, 여름, 가을이 분명하고, 또 시간을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여 과거, 현재, 미래가 분명하다. 그러나 호피

(Hopi)족에게는 시간이 객관화되어 있지 않고 관습적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 이렇게 볼 때 언어상대주의(Linguistic Relativism) 입장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언어상대성 가설이란 ‘언어는 사고다’라는 생각으로 즉 ‘사고가 반드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 언어의 영향을 사고가 받는다’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십나라 일본의 방어 명칭을 살펴보았을 때 어촌마을 특히 회유어인 방어의 회유 루트를 따라 그 명칭이 표6과 같이 세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매크로(Macro)적으로 보았을 때 크게 나눈 것이며, 마이크로(Micro)적으로 분석한 中井(2018)의 연구 역시 살펴 볼 수 있다. 中井에 의하면 방어의 산지인 도야마(富山)현 내에서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으로 나누어 그 명칭을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도야마 동부 지역에서는 그림3과 같이 ツバイソ→フクラギ→ガンド→ブリ 또는 ツバイソ→フクラギ→ハマチ→ブリ처럼 성장단계에 따라 명칭이 달라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도야마 서부 지역에서는 コズクラ→フクラギ→ガン드→ブリ와 같이 명칭이 바뀐다. 결국 中井(2018)에서 도야마 동부에서는 일년 내내 미성어(幼魚)인 ツ바이ソ인데 비하여 서부에서는 코즈크라라고 부른 지역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동부에서는 성어(成魚)인 브리의 전 단계인 가न्द라고 불리는 지역과ハマチ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나뉜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방어의 성장단계를 보았을 때 도야마 동부 ツ바이ソ→フクラギ→ハマチ→ブリ 또는 서부 코즈크라→フクラギ→ガン드→브리는 4단계 명칭, 내륙 쪽에서는 3단계가 많고, 산간부에는 2단계 フクラギ→ブリ 또는 단순히 브리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방어의 광역적 해역 단위로 보았을 때와 中井과 같이 지역적 지역 단위로 보았을 때 양쪽 모두 출세어인 방어의 명칭에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유통경로 즉 방어의 판로와 연관되며 소금에 절이지 않은 방어의 경우 연안 지방에서만 소비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일년생 ツ바이ソ와 코즈크라 또는 이년생 フクラギ 등이 내륙 지방에서 요리재료로서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따라서 도야마 연안에서 10km 떨어진 내륙 지방에서는 무염 방어가 유통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상인들이 방어를 팔러 내륙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모두 염장된 방어이다. 이렇게 염장된 방어지만 내륙에서는 비싸게 팔려 연말연시에 かぶら寿司(かぶらずし)라는 도야마 현과 이시카와 현의 독특한 식문화가 탄생되었다. かぶら寿司는 순무를 잘라서 염장된 방어와 당근 등을 끼워 발효시킨 스시이다.

논문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출세어란 치어(稚魚)에서 성어(成魚)까지 성장 단계별로 다른 명칭을 가진 물고기를 지칭
- 출세어의 명칭은 지역별로 다양화된 방언이 존재
- 출세어인 명칭은 광역적으로 살펴볼 때 계절적 이동 경로 즉 해역별로 다름
- 송어를 언어지리학적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의 서해안 지역에서 매우 언어분화가 발달되어 있음
- 일본에서 방어는 마이크로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도야마 지역 동부와 서부,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에서 방어를 부르는 명칭과 식문화 차이가 존재
- 한국에서 방어의 경우 계절적 이동경로에 속하지 않은 서해안에서는 방어의 명칭이 매우 단순하지만 동해권 남해안, 제주해에서는 명칭이 다양
- 서식지가 동해가 아니며 완벽한 해수어가 아닌 송어나 농어의 경우 일본식 표현의 언어접촉 예는 적음

이와 같이 출세어 어휘의 수용은 지역문화와 밀접한 관계 속에 영향을 끼치며, 해역기층문화 계층에 속한 어부들의 언어생활 속 어휘체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문기(2016) 「茲山魚譜와 海族圖說」 『역사와 경계』 101 pp.67-132
- 김중빈(2004) 「魚譜類에 나타난 19C초의 수산물 어휘 연구」 『한어문교육』 12 pp.137-173
- 김지숙(2017) 「어획물 명명 기반에 따른 명칭 연구」 『어문론집』 69 pp.55-93
- 김홍석(1996) 『한국산 어류 명칭의 어휘론적 연구』 공주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홍석(2001) 「우해이어보에 나타난 차자표기법 연구-어명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29 pp.100-134
- 농상공부수산물국 (1909) 『韓國水産誌』
- 손병태(1997) 「경북 동남 지역의 어류 명칭어 연구」 『한민족어문학』 32 pp.149-163
- 이근우(2009) 「韓國水産誌의 수산물 명칭과 번역의 문제」 『동북아 문화연구』 21 pp.21-37
- 이태원 홍지민 윤재선(2014) 「태안 연안에서 이각망에 의해 채집된 송어의 연령과 성장」 『한국어류학회지』 26(3) pp.194-201
- 장태진(1969) 「물고기 이름의 어휘 연구」 『한글』 143 pp.112-141
- 정문기(1982) 「물고기와 더불어 80년」 『정신문화연구』 13 pp.136-139
- 조영제(2009) 『생선회 100배 즐기기』 김&정
- Yang Minho(2018) Study on Vestiges of Japanese in Fishing Village Language *Journal of Marine and Island Cultures vol.7 no.1* pp.48-49
- 李崇寧(1935) 「魚名雜攷」 『진단학보』 2 pp.134-149
- 中井精一(2018) 『方言の研究3 語の受容と社会的機能—ブリの成長段階名の拡大とその背景』 ひつじ書房
- 中井精一(2018) 「富山湾—その豊かな沿岸世界と内陸をつなぐぶり」 기사발취
- 福井県水産試験場(2008) 「日本海における大型ブリの動き」 기사발취

【인터넷 자료】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36180>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13151>

<https://foodslink.jp/syokuzaihyakka/syun/fish/suzuki.htm>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73XXXXXXf204>

K C I

— (要 旨) —

韓国と日本の出世魚の名称に関する対照研究

本論文は韓国と日本の出世魚の名称について言語地理学的立場から記述したものである。その結果、多様な魚の名称が海域と陸域の地理的特徴、出世魚の移動経路、出世魚が販売されている商業販路と関連されていることが確認できた。また、韓国では汽水域に生息しているボラが日本では海水域に生息しているブリの名称の語形分化がより発達していることが確認できた。本論文を通じて三面が海で囲まれている韓国と島国である日本、そして東シナ海を共有する東北アジアの国々の立場から境界を越えて自由に移動する出世魚の名称と食文化の異同を通じて海域基層文化の理解という基礎を固めるきっかけとなったと考えられる。本論文の内容を簡単にまとめると以下のとおりである。

- 出世魚とは、稚魚から成魚までの成長段階別に異なる名称を持った魚を指す
- 出世魚の名称は地域別に多様な方言が存在する
- 出世魚の名称は広域的にみると季節的移動経路、すなわち海域別に異なる
- ボラを言語地理学的立場からみると韓国の西海岸の地域で非常に語彙体系が分化されており、発達している
- 日本ではブリはマイクロ的にみると富山地域の東部と西部、海岸地域と内陸地域でブリを指す名称と食文化の違いが存在する
- 韓国ではブリの場合、季節的移動経路に属していない西海岸ではブリの名称が非常に単純であるが、東海岸の南海岸、済州海岸では名称が多様である
- 生息地が東海岸ではなく、完全な海水魚ではないボラとスズキの場合、日本式表現の言語接触の例は少ない

このように出世魚の語彙名称の受容は、地域文化と密接な関係があり、影響を与えながら海域基層文化の階層に属する漁民たちの言語生活の中の語彙体系の変化をもたらし得ることがわかった。

論文分野：社会言語学

キーワード：言語地理学、出世魚、言語接触、方言、対照研究、海域

■ 양민호(梁敏鎬)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연구교수

minhojinsei@gmail.com

- 投稿日： 2019년 7월 9일
- 審査開始： 2019년 7월 17일
- 審査完了： 2019년 8월 8일
- 掲載確定： 2019년 8월 9일